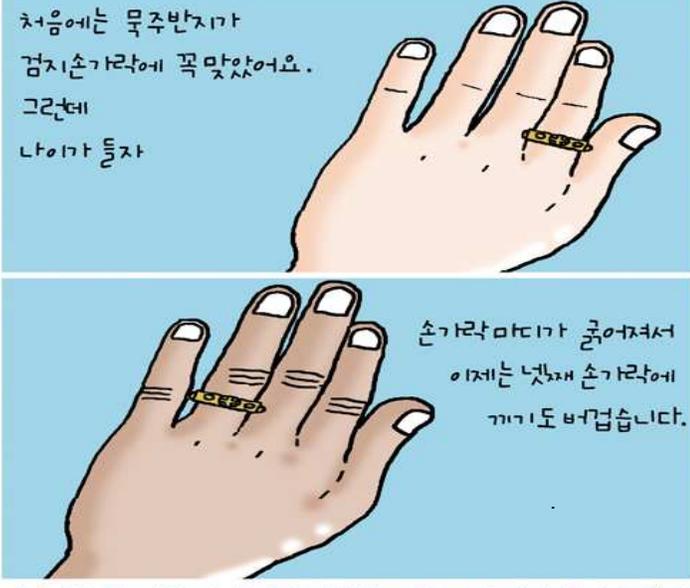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66, 18-21
[화답송] 시편 117(116), 1, 2-4 (◎ 마르 16, 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 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 2독서] 히브 12, 5-7, 11-13
[복음 환호송] 요한 14, 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음] 루카 13, 22-30

시간이 흐른 만큼 손가락마다처럼 믿음도 굵어지면 좋을텐데..

성가	8시 미사	입당 19	봉헌 216 512	성체 170 171	파견 34
	11시 미사	입당 19	봉헌 216 512	성체 170 171	파견 3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1주일(8월 25일)		연중 제 22주일(9월 1일)		연중 제 23주일(9월 8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허세실리아(홍숙)	김글라라(순희)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이바로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허세실리아(홍숙)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루카13,23)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대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마태오 복음서에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마태7, 13-14)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고 좁은 문 대신에 편안하고 넓은 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보다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히브12, 12-13)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좁은 문으로 가기 보다는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라는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진리와 옳은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안하고 위험하지 않은 쪽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눈치껏 요령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물리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그리고 바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까요. 아멘.

신앙인인 우리조차도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현실적으로 의롭고 용기 있게 살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고 대답할 것이다.” (루카13,25)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루카 13,25-27)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 미사에 참여하고 강론 말씀을 듣고 성체를 받아먹었다 하더라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는 준엄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이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무리 천주교 신자라고 해도, 개신교에 열심히 다녔다 해도 옳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명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점을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 보았을 명작소설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소설을 접했는데, 당시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좁은 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내면적 갈등을 자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1869년 파리 출생으로,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강요한 어머니 아래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좁은 문」은 그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 시작한 10대 후반부터 사촌 누이를 사랑하고 불안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도 남자 주인공 제로몽은 자신보다 두 살 위인 외사촌 누이 엘리사를 사랑합니다. 둘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지상에서 이를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바로 ‘좁은 문’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설 속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신앙에 대한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자는 작품 안에도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소설 「좁은 문」에서의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이 아닌 ‘두려움과 징벌의 하느님’ 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태 7,21 참조)

오히려 주님을 어설피게 아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꼴찌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탐욕으로 살찐 몸뚱이는 욕심을 버리고 줄여야 합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길입니다. 우리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매 순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가톨릭교리상식

< 헌금 >

1. 유래

- 초대교회 때부터 헌금이 있었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 4세기 때 헌금이 미사 중에 봉헌되고 전례적인 성격을 갖추게 됨

2. 의미

- 헌금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 헌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답례하기 위해서
- 흠숭과 찬양, 경배의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
- 자기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음
- 자발적인 신앙심에서 헌금을 내야 함
- 이웃 사랑의 실천, 자기희생의 상징
- 평신도는 사제와 함께 희생제물에 자신을 포함시켜 하느님께 봉헌

말씀의 향기 주님,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소서.

인디언의 기도는 하느님이 틀림없이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가령 비가 오지 않을 때 인디언이 기우제(祈雨祭)를 올리면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이랍니다.

공공이 생각해보면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백발백중입니다. 아니 제 기도의 적중률은 인디언의 기도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보너스로 나머지도 “곁들어 받게” (마태 6,33) 해주셨으므로 백퍼센트를 훨씬 초과 달성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은 악하고 선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듯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통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핫라인입니다. 이 긴급 직통전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도, 기도를 청할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 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살려 달라’ 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SOS의 모스부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니체의 말처럼 하느님은 죽은 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마태 18,19)

문제는 기도를 백 퍼센트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저처럼 눈이 어두운 소경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습니다.(루카 17,11-19 참조)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고 청하였고, 주님은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열 명의 환자는 사제를 향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아흠 사람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시며 돌아온 환자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한 환자이지 고마움을 모르는 아흠 사람 중 하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야말로 주님께 돌아와 찬

양한 환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해일 수 없이 수많은 기도를 올리면서도 아흠 환자처럼 조금 전까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울며 기도했던 순간마저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치미를 떼고 감쪽같이 기적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범죄(?)를 저지르시기에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평화는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은 느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금세 잊어버린다. 마치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는 남은 물을 버리는 것처럼.”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애원하면서도 막상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루어진 기도를 금방 잊어버리고 남은 물을 버리는, 옆드려 찬양할 줄 모르는 정신적 나환자입니다.

아아, 참으로 불쌍한 것은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느님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잠깐 사이에 세 번이나 배신하는 저의 약하다 약한 베드로적 믿음입니다.

“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을 씻겨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소서.” (루카 22,32)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작가

머무름

낙태나 안락사 등 무고한 인간 존재의
직접적 살해를 합법화하는 법은
모든 사람의 생명 불가침권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72항

가톨릭전례

죄의 용서를 만나이다

1) 죄의 용서 - 하느님의 선물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분리되었고, 이웃들과도, 자기 자신과도 분열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구원(非救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과 화해하고 일치하는 구원의 공동체(하느님 나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조건은 한 가지뿐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인도하시기 위해 죄의 용서를 선사하십니다.

2)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의 어려움

어떤 군인이 실수로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언제 적어 튀어 나올지 몰라 극도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상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소년이었습니다. 그 사고 후에 군인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지만, 죄책감을 벗어 버리지 못한 채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우리가 저지른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3) 교회를 통한 죄의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음성으로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용서를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교회가 당신의 용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죄의 용서는 하느님의 선물이지,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죄책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심리 상태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죄에 따른 벌까지 없애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죄의 용서를 신앙과 세례에 연결시키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르 16,15-16). 세례는 우리 잘못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합시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로마 6,4) 하는 죄의 용서를 위한 첫째가는 가장 주요한 성사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977항).

세례성사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후에도 계속 죄로 기울어지는 유혹을 받고 자주 그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후에도 지속적으로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고해성사를 집행하는 권한을 교회에 맡겨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도 거룩한 교회가 용서해줄 수 없는 잘못은 없다. “아무리 사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의 뉘우침이 진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에 대해 확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누구에게나 용서의 문이 항상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982항).4)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1-22).

4) 용서받음에서 용서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77번 용서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음이 하느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일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피해를 입힌 이웃의 잘못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죄는, 내 죄가 그러하듯이,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로 용서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용서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존재”,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못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교리 내용들이 우리 믿음의 골자이지만 어찌 보면 이론일 뿐입니다. 설사 이런 교리들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 중에서 “죄의 용서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완성됩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인천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	189	31	-
헌 금	\$550	\$1,469	\$36	\$2,055

< 교무금 > \$3,410

염명련(7) 서춘애(8) 정일양(8) 옥지홍(7-12)
정창희(8) 배젼마(7-8) 신우현(7-8) 윤순의(7-8)
부건화(5-8) 최몽렬(7) 김영길(7-8) 이순자(7-8)
최재준(4-6) 임희숙(6-7) 최윤기(7-8)

< 성소후원금 > \$150

서춘애(8-9) 정창희(8) 최윤기(7-8)

< Bishop's Appeal > \$190

정창희(8) 최윤기(7-12)

< 감사헌금 > 익명 \$100 김순이 \$2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6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날짜	지 향	봉 헌 자
8월25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주베드로(정기)	김안나(영숙)
	연 노에드워드	가족
	연 김마리아(은희)	자녀들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윤사비나(순의)	찬미성가대
	생 손리디아	이골롬바
	생 차루시아(아름)	차리디아
8월 2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Victoria Lowe	염파트리샤
	연 정아네스	정안드레아
	생 이모니카 축일	서데레사
	생 Chuck Chan 가정	염파트리샤
	생 유끼 모니카	염파트리샤
8월 28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서아오스딩 축일	서데레사
8월 29일 목	연 김사비나	채데레사
	연 윤바오로(광의)	전데레사(윤자)
8월 30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8월 31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생 제시카 페리 생일	김엘리사벳

~~~~ 오늘 간식은 최윤기 유스티노/정일양 안드레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추석합동위령미사 안내 : 9월 15일 교중미사

◆ 오클랜드 교구 가톨릭 묘지 축성식

일시 : 8월 25일(오늘) 오후 1시

장소 : 1051 Harder Rd. Hayward, CA

\* 사목회의는 축성식 후에 있습니다.

◆ 약정하신 2013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사목회의 : 8월 25일(오늘) 묘지 축성식 후

\* 마리아회 : 9월 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하상회 : 9월 8일 교중미사 후

◆ 오늘 성모회에서 유기농 대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10)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30을 장학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일시 : 9월 8일 오후 1시

장소 : 성당

지도 : 본당 신부님

접수 : 친교실

◆ 성서모임 오리엔테이션

- 창세기 반 오리엔테이션 :

9월 10일(화) 미사 후 친교실

- 탈출기 반 오리엔테이션 :

9월 12일(목) 미사 후 사제관 앞 회의실

◆ 뜨락회 피정

일시 : 9월 14일(토) 오전 8시반 - 오후 6시반(점심제공)

장소 : Vallombrosa center, Menlo Park

주제 : 나를 찾아서

지도 : 본당신부님

**8월 구역모임 필리피서 3-4장**

|       |             |                             |
|-------|-------------|-----------------------------|
| 1 구역  | 8월25일(일)5시반 | 최재준 토마스 덕                   |
| 2 구역  | 8월25일(일) 6시 | 지영남 요한 덕                    |
| 5 구역  | 8월25일(일)10시 | Lake Chabot                 |
| 8-1구역 | 9월 1일(일) 1시 | 교육관 107호실                   |
| 10 구역 | 8월31일(토)5시반 | Rossmoor Hillside Clubhouse |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새로 오신 가정

8-2(버클리) 구역 : 흥정민 시몬/이숙현 소피아 가정

◆ 장례미사 안내

노을식 에드워드 형제님이 지난 21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가 26일(월)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미사 : 11시 친교실**

**주일학교 개학 : 9월 8일**

**주일학교 등록 : 친교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개강 후 10/26까지)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